

치 사

1990년 11월 20일 창립 이후 지금까지 소외된 이웃들과 인권의 사각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와 여기에 모이신 ‘인권활동가’ 및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불교인권위원회 21돌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7번째를 맞이하는 불교인권상 수상자들과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불교인권상은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신 박경석님과,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미셀 카투이라님께서 수상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賞) 중에서 선뜻 “축하 합니다”라는 말을 건 낼 수 없는 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인권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두 분의 삶이 그렇고, 현재에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사회구조적인문제 등으로 끝임 없이 야기되고 있는 불평등은 결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권상수상자들의 활동에서도 보듯이 1%의 소수가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현실은 과거 공권력으로부터 유린되었던 인권과는 달리 빈곤과 차별·소외 등 사회전반에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전 세계는 20만개 이상의 슬럼이 존재하고,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재앙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건 없는 무한경쟁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이후 ‘전 세계의 슬럼화’는 예측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은 중생이 가지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소속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맑히고, 전 인류는 물론 더 나아가서 일체중생의 안락을 위해 애쓰시는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은 사회의 등불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대중견성(大衆見性)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입멸의 시간이 다가오자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서 칠불쇠법(七不衰法)을 설하시고, 베살리에서 귀족의

공양을 마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당시 인도에서도 가장 빈곤한 도시인 구시나가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훈으로서 깨달음의 실천인 대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이란 깨달음의 실천으로서 “작고 궁핍한 사람들의 곁으로 가는 것이며, 작고 궁핍한 흙벽 집 사람들 곁에서, 작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보잘것없는 외로운 것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열반은 “보잘것없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고, 물 생명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헌신이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자들의 당연한 권익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활동가들은 대열반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승보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불기2555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